

라인의 고통에 응답하려면

- 연극 「더 정글(THE JUNGLE)」 관람기

유명환 선전위원

스펙터클 사회에서 어떤 고통은 하나의 이미지로 소비된다. 매일 각종 미디어에서 다루는 많은 고통은 한낱 뉴스거리로 치부되거나 우리의 눈앞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저 세계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저 그런 것 같은 전쟁과 가난과 기아. 그래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는 전쟁이 선택된 전쟁이라는 사실과 그 전쟁이 사회에서 소비되는 방식에 못내 불편함을 느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가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모습을 담은 사진 역시 그랬다. 해당 사진이 전 세계에 난민 문제를 고발하고 각국 지도자들과 세계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연민의 한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곧 시들해지고, 기억은 사그라져 간다.

연극 「더 정글(THE JUNGLE)」은 스펙터클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이 유희 거리로 소비되는 방식에 단호히 저항한다. 약 180분 동안 진행되는 공연 속에서, 나는 프랑스 칼레의 난민 캠프 안의 그들과 생생하게 감정과 의식을 공유하며 공존함을 느꼈다.

2026년은 칼레 난민 캠프 ‘정글’ 철거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글’ 난민촌은 영국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프랑스 국경에 위치하며, 한때 1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머물렀다. 그러나 상황은 기본적인 상·하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으며, 난민들이 영국행 화물차에 목숨 걸고 탑승을 시도하면서 실제 목숨을 잃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그들이 영국행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영국의 이민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글’ 난민 캠프는 2016년 초 절반가량이 강제 철거되었고, 2016년 말 완전히 폐쇄되었다. 다음 해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올랑드 대통령은 칼레 난민촌 상황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정글’을 완전히 폐쇄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센터를 전국 각지에 세워 그곳에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영국은 밀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장벽 건설 등 국경 보호에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프랑스에 지원했다.

연극은 생생한 고통과 질문들로 가득하다.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죽고, 죽고, 또 죽어 세 번이나 죽었음에도 다시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의 사랑보다 신의 부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의미인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 나눔의 정신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난민이 되고자 한 누군가의 선택은 다른 누군가의 선택보다 더 쉬운 일인가? 근본적으로 난민이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약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절대선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난민 캠프에 있던 자원봉사자들과 영국인들, 지식인들은 위선자인가, 아니라면 그들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극중 인물 중 ‘샘’의 입장에 대해서 오래 고민했다. ‘샘’은 18살이고, 영국에서 명문고를 나왔다. 그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난민 현장에 온 자원봉사자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난민들과 달리 언제든 돌아갈 집과 고향이 있다. 또한 난민 현장에 난민들을 돕고자 온 자원봉사자치고는 그들의 역사에 대해, 그들의 상황과 맥락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줄곧 쉽게 단정 지으며, 모든 것을 자신이 중재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샘’에 대해 생각하며 신경림 시인의 「벽화」라는 시가 떠올랐다.

벽화 신경림

그들은 우리 쪽에 서 있다
우리와 함께 분노하고
발구르며 노래하고
저들을 향해 함께 돌팔매질도 한다

온갖 안락과 행복이 김처럼 서린 식탁에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들의 불행과 가난을 탄식하지만
포도주 향기 그윽한 벽난로 위에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우리네의 산동네가 아니다
산비탈에 위태롭게 붙은 누게집이 아니다

우리의 찌든 삶은
한 폭 벽화가 되어 걸린다
그들의 아들딸이 박힌 외국의 풍경 옆에
초라한 한 폭 벽화가 되어 걸린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찌그러진 알루미늄 밥
상 위의
통통 붙은 라면과 노랑물든 단무지가 아니다
병든 아내와 집 니간 딸애의 편지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 쪽에 서 있지만
함께 분노하고 발구르며 노래하지만
함께 노래하며 돌팔매질하지만



▲ 국내에서 네번째로 상연된 연극『더 정글』은 프랑스 칼레의 난민촌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진 : 극단 ETS

대학생이 되고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사자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당사자도 아닌 내가 현장에 가서 연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해도 되는지, 마치 ‘쌈’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지어 얘기하는 건 아닐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리 일정한 사회적 지위, 돌아갈 따뜻한 잠자리와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확신하는 내가 위선자처럼 보였다. 이 고민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당시 나의 가장 가까웠던 현장인 우리 학교 청소 노동자 분들의 한마디 말이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학생들이 있어서 힘이 된다고,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가 우릴 우습게 보지 못한다고.

연극 ‘더 정글’은 결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관객들에게 질문을 만들어 주고, 그걸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던지시 건네준다. 극중 ‘헬렌’ 역을 맡은 오가현 배우는 인터뷰 중 “2026년의 관객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어요?”라는 질문에 “극이 끝나고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켜고 무엇이든 궁금증이 생겨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도 이 말에 무척 공감한다. 타인의 고통을 마주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썩 내키는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그걸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접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가르치려 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분명 실패다. 그러나 조그만 계기로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게 된다면 그건 성공이다. 그런 조그만 호기심이 이제껏 세상을 바꿔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알되**